

석경일(石擎日)

1532년(중종 27)~졸년 미상. 자는 성보(誠甫). 본관은 충주(忠州).

부친 석규(石圭)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재종질(再從姪)로 석지형(石之珩)이 있다.

1564년(명종 19)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8위로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봉상주부(奉常主簿)를 거쳐 전적(典籍)에 이르렀으며 중학교수(中學教授)를 겸하였다. 영남(嶺南)의 문관(文官)으로, 성품이 어리석고 정직하여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하루에 백 글자를 정해놓고 반드시 천 번을 읽은 후에야 그쳤다. 10여 년 공부하고 나니,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마음과 눈으로 꿰뚫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명경과에 급제를 하였다.

벼슬을 하던 어느 날 새벽 석경일(石擎日)이 타는 말이 달아났다. 석경일은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첩의 자춧빛 장의(長衣)를 입고서 침모(寢帽)를 쓴 채 말을 찾으러 다녔다. 말은 달려서 중학(中學) 속으로 들어갔는데, 석경일이 중학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새고 말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학리(學吏)가 장의와 바지도 안 입고 맨발인 석경일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어서는 석경일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학유(學儒)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알리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결국 석경일은 이 일 때문에 불우한 생을 살다 죽었다.

竹窓閒話全

泄蒼黃，因措急脫衣裳，或拈而背負，或捲而頭戴，皆倚壁蹲坐，任其放泄。彼此急注左右，相射穢汁，交流腰下，沉沒終日，空腸泄瀉不止，氣力擻盡。相與枕籍於積糞之中，怨呼徹聲，臭臭盈室，人不敢近。監司與守令窺見，拍掌大笑，日暮始放出，皆沾舐塗足，形如鬼物，羞愧不敢舉頭，只自涕泣矣。此特其監司之戲謔餘事耳，他何足道。癸亥，反正監司被罪云。

石擊日，乃嶺南文官也。性癡直，自少力學，日以百字為限，必讀千遍而後已。如是者十餘年，四書三經無一字遺漏，首尾貫徹了了於心。目中果登剛徑科，為典籍，常兼中學教授。一日曉頭所騎馬放逸，擊日蒼黃驚起，誤着其妾之紫芝長衣，頭戴寢帽，躬自追逐。馬走入於中學，擊日既至，中學日已盡曙，進退狼狽，彷徨於門外。學吏偶見，乃石教授也。大驚曰：進賜何以至此！白日路邊瞻視，有駭請少避。小的家待其冠服之未奉還，宅矣。

擊日以長衣寢帽脫袴跣足慙愧不自勝悅首低顏只自唯、俄頃之間
觀者如堵指為狂夫吏取束冠服而送之學儒聞之寫以為面一時傳播
任為笑需以此遂至坎呵云

李生大醇庶孽也精通經學多識禮文知名一時為童蒙訓誨諸生多有
成就立朝之人亂後流寓於川至窮不能自存有大臣素知李生經術憐
其窮困還付訓導使之受祿資活李生入京僑寓於崇禮門內遠近冠童
受業者頗多李生依平時訓蒙之規誦其所讀不能者施罰考其到次早
來者先教以其課程序其年齒學徒大怒曰某乃庶孽吾何以坐於其下
吾雖後來渠何敢學於我先挾勢使氣每相毆打任一戰鬥之場李生不
勝其苦少加警責則必對面致辱一日李生來余告別余甚恠訝問其所
由李生曰吾自六七歲受業於先生長者今已六十餘年矣未見如今日